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20 >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베토벤의 대표작들

●KBS교향악단 제706회 정기연주회 | 5월 20일 |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올해로 창단 6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이 상임지휘자 요엘 레비의 지휘로 제706회 정기연주회(사진)를 개최한다. 웅장함과 강렬함으로 대변되는 작곡가이자 청각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주인공인 베토벤 스펙트럼으로 마련했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작품84 전곡이 연주된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와 성우 설영범의 내레이션이 함께 해 더욱 섬세한 감정을 그려낸다.

이날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곡은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다. 요엘 레비의 해석을 통해 복잡하고 다층적인 베토벤의 대표작을 설득력 있게 들려줄 계획이다.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시즌2 콘서트

●온신포 페스티벌-아트 파라다이스 | 5월 24일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지난 9년간 서울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세종문화회관의 '천원의 행복'이 10주년을 맞아 시즌2 '온신포'로 새롭게 태어났다. 4월 '오버 더 체임버'라는 주제로 열린 랙트 콘서트에 이어 5월에는 온신포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24일 한 날 한 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두 곳에서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의 '세종온신포'는 '시네마 파라다이스'이다. 영화 속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었던 클래식 음악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선보인다.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설국열차'의 '노래의 날개 위에', '반지점점 하다'의 '쇼스타코비치 재즈모음곡 2번 왈츠' 등 영화 속에 흘렀던 클래식 선율을 프라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지휘 장윤성)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삽입되어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애칭으로 더욱 유명한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1번'의 1악장과 2악장을 피아니스트 한기정이 협연한다.

'북서울 온신포'는 '어쿠스틱 파라다이스'이다. 축축한 음악으로 메마른 도시인의 마음을 적서 주는 감성듀오 '멜로망스', 오리엔탈 어쿠스틱 듀어 '신현희와 김루트'가 무대를 준비 중이다.

비발디의 가을, 겨울...민츠가 전하는 감동

●솔로모 민츠 & 율동환-세계적 거장과의 만남 | 6월 29·30일 | 서울 금호아트홀

11세에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거장 바이올리니스트 솔로모 민츠가 한국의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율동환과 듀오 연주회(사진)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비발디의 '사계'. 아이작 스티븐, 핀커스 주커만, 이작 필만과 함께 그라모폰에서 녹음하면서 솔로모 민츠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음반에서 '가을'을 연주했던 솔로모 민츠는 이번 공연에서 '가을'과 '겨울'을 연주한다.

율동환과 함께 J. S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도 들려준다. 솔로모 민츠의 지휘로 바흐 콜레기움 서울이 연주하는 C. P. E 바흐의 교향곡 5번도 만날 수 있다.



김금미 명창, 유성준제 수궁가 완창 무대

●김금미의 수궁가 | 5월 28일 | 서울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

국립극단의 간판배우인 김금미 명창(사진)이 유성준제 수궁가 완창을 선보인다. 김금미는 '장화홍련'의 허씨, '서편제'의 노년 송화, '메디아'의 도창장, '안드레이 서반의 다른 춘향'의 월매 등 국립극단급의 대표작에 출연해 창극배우로서 두터운 팬 층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창극단 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근간인 소리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소리 내공을 축적해 왔다.

이번에 완창에 나서는 유성준제 수궁가는 2008년 첫 완창무대에서 불렀던 작품이다. 유성준제는 여러 갈래의 동편제 수궁가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소리제이다. 판소리 특유의 슬픈 음색보다는 힘있고 박진감이 넘치며 오락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김금미는 "유성준제 수궁가는 상황묘사나 감정표현이 두루뭉술하지 않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전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화영·이태백 고수가 북 장단을 치고, 군산대학교 최동현 교수가 해설과 사회를 맡는다.



뉴스디자인 | 김창조 기자 minigram@donga.com

Biz gallery

CJ제일제당, '쁘띠첼 워터팝' 출시

CJ제일제당의 디저트 브랜드쁘띠첼이 '쁘띠첼 워터팝'(사진)을 출시했다. '쁘띠첼 미초'보다 과일발효효소의 농도를 8배 이상 농축한 신개념 음료베이스 제품이다. 청포도, 레몬, 믹스베리의 세 가지 맛으로 생수나 탄산수 등에 넣으면 물을 과일맛 음료처럼 즐길 수 있다. 제품 하나가 한손에 들어오는 크기와 휴대성이 뛰어나다. 60ml 용량의 '쁘띠첼 워터팝' 제품 하나로 20잔(100ml 종이컵 기준)의 과일 음료를 만들 수 있다.



G마켓·옥션, 에어컨 클린 판매 도입

G마켓과 옥션은 에어컨 온라인 구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에어컨 클린 판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에어컨 설치 환경과 배송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설치비와 배송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관행적으로 추가되던 기본 설치비는 아예 없었다. 에어컨 판매자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에어컨 카테고리에 한해 상품 등록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회사가 인증한 판매자만 에어컨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 등록 및 판매 방식을 상세하게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G마켓은 가정용 에어컨을 대상으로 지난 달 26일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옥션은 이달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조이스티, 앵그리버드 IP 사용 계약

조이스티가 로비오와 '앵그리버드' 지적재산권(IP)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앵그리버드는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가 35억건에 이를 만큼 대중적 인지도를 자랑하는 타이틀이다. 조이스티는 이를 통해 대표 모바일 게임 '주사위의 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보드게임을 선보일 계획이다. 조이스티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로비오가 그 지역에서 퍼블리싱한다. 조이스티 조성원 대표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해 아시아를 넘어 북미, 유럽 등 서구권에 대한 새 활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비오는 5월 개봉 예정인 영화 '더 앵그리버드 무비'를 시작으로 사업 영역을 게임에서 영화 스크린까지 확장하고 있다.

KT, 공중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

KT는 '공중전화 발신정보 표시 서비스'를 개시했다. '후후'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나 '후후 스텝 앱'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아이폰으로 공중전화를 걸 때 수신 단말에 공중전화 위치별 발신정보를 표시해 주는 무료 서비스다. 수신자로 하여금 벨이 울리는 동안 공중전화 발신자의 신원을 유추하거나 공중전화 발신임을 인지해 수신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중전화가 주된 외부 소통수단인 군 장병들이 전화를 걸 때 스팸전화

로 오인돼 수신을 거부당하는 경우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 외관 공개

현대자동차가 경기도 고양시에 건립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체험 시설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의 외관(사진)을 9일 공개했다.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이 고객들로 하여금 자동차 문화와 예술을 통해 브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라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 고양'은 자동차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자동차 문화 공간'이라는 테마로 차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녀를 동반한 가족 또는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듯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 시설로 더 많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자동차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1만6719㎡(5058평)의 공간에 지상 9층, 지하 5층의 총 14개 층 규모로 건립된다. 킨텍스, 자유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2017년 초 개관할 예정이다.

맥도날드, 어린이병원에 '행복의 버거' 전달

맥도날드가 지난 4일 '행복의 버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남 양산에 위치한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환우들에게 해피밀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글로벌 비영리 재단인 한국로날드 맥도날드하우스의 후원사로서, 어린이를 위한 세트 메뉴인 해피밀 세트를 판매할 때마다 50원씩을 기부하는 등 어린이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내 어린이병원학교의 개설을 도왔으며, 장기간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병원 근처에 머물며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내 1호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건립하는 일도 지원하고 있다.